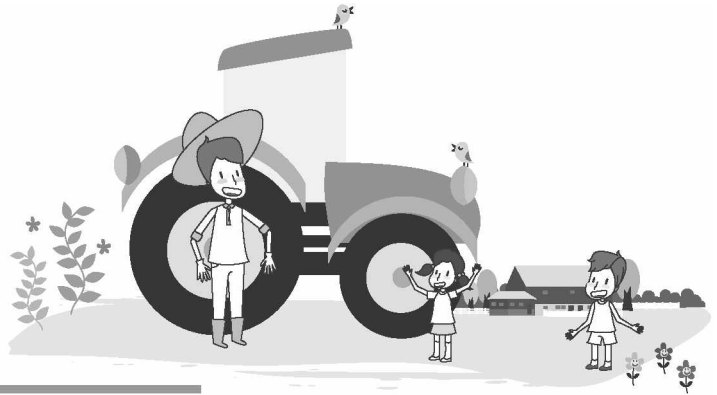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김영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듣기에 따라서는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30조 원 가까운 돈을 3차례에 걸쳐 농업·농촌 투융자에 투입하였다

한쪽에서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농촌이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농업인이 이렇게라도 사는 것은 그래도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우리 농업에 시원한 물줄기를 뽑아줄 마중물로 활용되었는지 마실물로 착각한 사람들의 갈증 해소용에 그쳤는지를 따

지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농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들고 농업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는 그 해답을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이야기한 다산 정약용의 3농 이념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다산은 35세에 황해도 곡산부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관리로서의 현장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제시하라는 정조의 교지에 응하여 '응지론농정소'를 올린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에는 다른 산업만 못한 세 가지가 있는데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안하기로는 백공(百工)만 못하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농업을 권면(勸勉)하여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유명한 3농정책을 피력하였으니, 첫째는 편농(便農)으로 장차 편하게 농사짓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후농(厚農)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익이 있게 하려는 것이요, 셋째는 상농(上農)으로 농업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 그때나 20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된 농업의 고민은 매 한가지이고 그 해결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좀 덜 고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고, 농업이 우리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인정된다면 농사를 기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산이 이야기한 해법인 3농정책(편농, 후농, 상농)이 생력화기술, 스마트농업, 6차산업화 등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어 농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돌아오는 농촌, 매력있는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걸어야 하는 기치는 '행복한 농업인' 이다.

요즘 TV를 보면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건강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많고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먹거리에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 영국 익스프레스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인간은 평생 약 35톤의 음식을 먹고 7만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평생 먹는 음식량을 보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즐거움이요 건강한 삶의 바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근원은 일부 수입산을 제외하면 신선농산물이던 가공품이던 대부분 그 출처가 우리 농촌이요 농민인데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우리 농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만약 국민들이 저가로 좋은 농산물을 잘 먹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힘들어 진다면 소비자 역시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 또한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의 58%에 불과하고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처럼 흉년이 들면 수확량 때문에, 풍년이 들면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걱정해야 한다면 우리 농민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수급조절 시스템 및 경영안정 직불제 등 농가소득을 보다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농 구조, 농업인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 우대, 고령농 연금지급, 휴경보조금 확대 등 우리 농민을 행복하게 해줄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민이 안녕하고 진정 행복해질 때 우리농업이 생기를 찾을 수 있고, 농업이 생기를 찾아야 식량안보도, 농촌경관도, 소비자의 건강한 식탁도 유지되어 비로소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